

하다가 절의를 지킨 충절의 얼을 기리고자 강릉 최씨(江陵崔氏) 후손과 울진군에서 기곡동 무령현(武靈峴)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웠다.

제3절 고목3리(古木三里)[속명 : 시목리(柿木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덕천리(德川里)와 접하고 동해가 바라보이며, 서쪽은 장대산(長大山) 화성리(花城里), 용장동(龍場洞)과 인접하여 있다. 남쪽은 시정재가 가로놓여 울진읍으로 가는 구길(舊路)이 있으며, 북쪽은 뒷산(山)인 남산(南山)이 마을을 둘러싸고 마을 안에 동묘산의 놀이동산이 있다. 2007년에 마을회관이 건립되어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대규모 근로자 숙소와 식당이 조성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600년경에 담양인(潭陽人) 전승록(田承祿) 선비가 마을을 개척할 때 지형(地形)과 주위(周圍)가 좋았고, 뒤로는 큰들(內坪)과 도로를 끼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는 자생(自生) 감나무가 많아 시목동(柿木洞)이라 하였다. 그 뒤 약 100여 년 후에 영양 남씨(英陽南氏) 형제가 마을 서편에 집을 짓고, 마을 가운데에 있는 봉우리를 경계하여, 동쪽은 전촌(田村), 서쪽은 남촌(南村)을 형성하였다. 오늘날 두 성(姓)이 호수(戶數)도 같고, 재산도 같고, 인재등용(人材登用)도 같다 하여 인근 마을 사람들이 ‘저울대’ 형국이라고 일컫는다.

3. 가구 분포

총 39세대가 거주하며 담양 전씨(潭陽田氏), 영양 남씨(英陽南氏)의 집성촌이다.

4. 마을의 특징

1) 성황당(城隍堂)

당(堂)집과 노송(老松)으로 된 성황당이 마을 앞에 있는데 매년 음력 정월 15일에 제사를 올린다.

2) 세지마쿤산

시목동(柿木洞) 입구에 있는 산으로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의 고인돌 9개가 있는데 가로 2m, 세로 3m의 크기로 되어 있고 현재 보존되어 있다.

제4절 금성리(錦城里)[속명 : 검싱이, 수거령]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매봉산(鷹峰山) 지맥(支脈)이 삼척군과 경계를 이루며 동쪽으로 뻗어 남쪽으로 금산봉(錦山峰)을 이루고 그 아래에 물골들이 있다. 서쪽에는 수거령(嶺)이 있고, 남쪽은 옥녀봉(玉女峰)과 족두리봉이 쌍봉을 이루며, 북쪽은 대삼각지(大三角地)의 농지와 고적령(古積嶺)이 있고, 고개 너머에 강원도 삼척군 원덕읍이 있다. 검재 금성, 중간마, 아랫마, 내산골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을회관은 2005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풍광이 빼어난 금산, 수거령, 도투말재, 마전곡, 옥녀봉, 족두리봉, 후두봉, 무당소를 8경으로 여긴다.

2. 마을의 역사

1630년경에 주씨(朱氏)라는 선비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으며, 그가 항상 수레를 타고 이 고개를 넘었다 하여 지명을 수거령(嶺)이라 하였다. 그 후 행정구역 개편 때 뒷산에 성(城)이 있었다 하여 금성리라 하였다.

3. 가구 분포

총 51세대가 거주하며 영월 엄씨(寧越嚴氏)가 주를 이루며,新安 주씨(新安朱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영일 정씨(迎日鄭氏), 울진 임씨(蔚珍林氏), 남양 홍씨(南洋洪氏), 평택 임씨(平澤林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